

#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안전불감증' 폭발위험 소화기 방치



공주시(시장 김정섭) 석장리박물관은 폐기해야 할 '노후 가압식' 소화기를 수십개 방치 사용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작동 여부가 불확실하고 폭발 위험까지 있는 노후 소화기가 지난 5일 사흘간 개최중인 공주 석장리구

석기축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재장비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제 기간 인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폐기 대상인 노후소화기가 방치돼 허술한 재난 대응책에 불

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곳은 하천을 불법 점용 한 박물관으로 인근에 산책로 갈대밭, 유채밭 기념비, 막집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다. 불에 쉽게 타는 인화성 물질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작은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

될수 있다는 직언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미처 점검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축제당일 취재 결과 교체 된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당국의 행정은 미흡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민준 기자

# 백신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명백하지 않아도 피해보상 고려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총남 서산·태안)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명백하지 않아도 피해보상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가 현재까지 18,110건이라며 대통령께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던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에 이어 최근에는 50대 의사가 백신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20대 남성이 백신접종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기금현 기자

대한 국민불안이 최대한안임에도 정부여당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과성 증명'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대변인은 백신 부작용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화이자·모더나 같은 좋은 백신을 제 때에 구하지 못한 사고는 고사하고 막말의 상존가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또 "우리 국민은 현재 접종받은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백신 선택에 대한 권리조차 없다면 국가는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책임 운운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하고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라도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현 기자

# 청주시, 교육경비 8억 4300만 원 청주교육지원청에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해 2개교에 지원

청주시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교에 8억 4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비 7억 7300만 원과 남성초등학교 가상현실(VR) 스포츠교실 구축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강우, 미세먼지 등 기후로 인한 체육활동의 제약으로부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

단 기술로 학생들이 화면 속 신체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위험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병태 기자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폭염, 굵은 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로 갈수록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학생들의 체력 향상은 물론 협동심과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4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백병태 기자

# 청양 농업인들 대표 여름과일 수박 본격 출하



"청양에 고추, 구기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도 높은 수박도 있습니다." 청양지역 농업인들이 지난 4일 장평면 소재 정산농협 경제종합센터에서 '청양 수박' 첫 출하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날 30여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조직은 알맞은 기온과 토양 여건, 높은 재배기술로 100여 일간 공들여 재배한 수박을 출하하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기대했다. 농업인들은 수박발 현장 심사와 엄격한 당도 측정 등 공동 선별과정을 거쳐 무게 5~8kg, 당도 11~13브릭스 조건을 충족하는 고품질 상품만을 시장에 내놓았다. 농업인들은 17ha 면적에서 생산한 수박으로 매출 11억 원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리를 함께한 김동곤 군수는 "우리 군은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 검증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선별한 안전 농산물만을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이름으로 출하하고 있다"며 "달고 시원한 고품질 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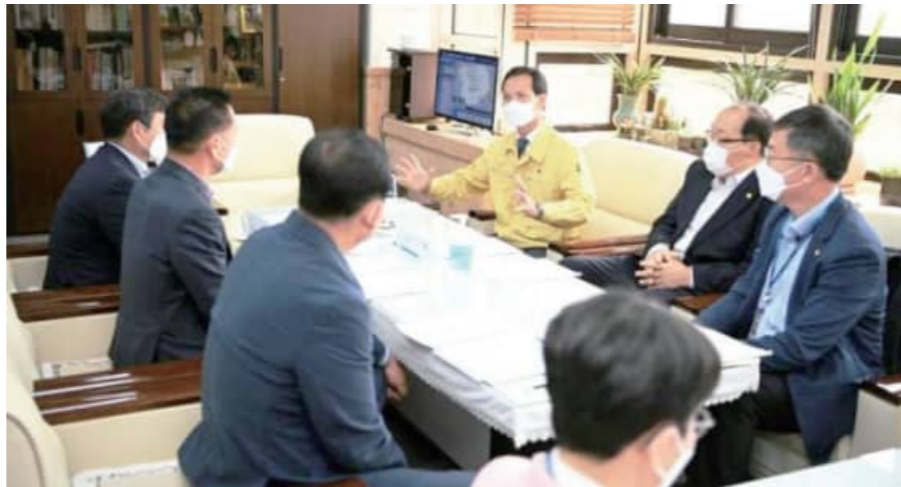
이날 30여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조직은 알맞은 기온과 토양 여건, 높은 재배기술로 100여 일간 공들여 재배한 수박을 출하하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기대했다. 농업인들은 수박발 현장 심사와 엄격한 당도 측정 등 공동 선별과정을 거쳐 무게 5~8kg, 당도 11~13브릭스 조건을 충족하는 고품질 상품만을 시장에 내놓았다. 농업인들은 17ha 면적에서 생산한 수박으로 매출 11억 원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리를 함께한 김동곤 군수는 "우리 군은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 검증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선별한 안전 농산물만을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이름으로 출하하고 있다"며 "달고 시원한 고품질 수박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 음성군, 청량(淸涼)한 소통 행정 돋보여

소통·공감의 날 통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만족감 up, 기대감 up

충북 음성군은 군수실에서 맹동면민들과 소통·공감의 날(이하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군정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소통의 날에는 임흥식 맹동면이장협의회장과 민만식 지역발전협의회장, 임진혁 체육회장, 서형석 의원이 참여해 맹동면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건의된 사항은 맹동저수지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과 맹동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부지확장,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 시 지하주차장 건립,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의뢰 등 4건이다. 이와 관련해 조병욱 음성군수는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 사업비

가 많이 드는 만큼 충북도와 협조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 만큼 군 예산을 헤아려 설계가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맹동종합 스포츠타운은 7만1156㎡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는 다른 읍·면에 비해 오히려 큰 규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도 권역형 체육공원의 권장면적이 5만㎡ 이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민들이 원하는 부지확장은 합틀어도 주민설명회를 우선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면민이 원하는 스포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건립 시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보다 지상 주차타워를 선호하는 것이 최근 추세로, 지



하주차장보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예산대비 주차장 면수 등의 효율성,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혁신도시의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서둘러 주차장을 건립해 혁신도시 주차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건의사항인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건의는 "맹동면의 경우 앞으로 인

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청사 신축의 경우 100% 군비가 들어가는 사안으로 군에서 바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음성군청의 청사도 비좁은 상태로 일부 부서는 별관에 있어, 주민들이 민원업무 보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군청사의 증축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정기섭 기자

# 창원시,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문 열어

CNA서울아동병원 평일23시, 주말22시까지 야간진료 실시

창원시(허성무 시장)는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CNA 서울아동병원(성남구 상남동 소재)이 지난 1일부터 야간진료를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야간 또는 휴일에 불가피한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등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이다. 창원시에서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CNA서울아동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365일 연중무휴로 평일 23시, 토·일요일 22시, 공휴일 18시까지 야간 외래 진료를 제공한다. /맹비희 기자

인근의 아나파약국과 메디칼큰은 누리약국이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야간까지 운영해, 달빛병원 환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야간에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이 지난 4일 CNA서울아동병원에서 개최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중간에 소아과 방문이 어려운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맹비희 기자

# 아산시,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94건 추진상황 공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연중 확대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6일 2021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94건을 확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실명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앞서 시는 시민신청사업 4건, 주요시정 현안 9건,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74건, 1억원 이상 연구용역 7건의 총 94건의 사업을 발굴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어 사업별로 4월까지 진행 상황을 작성한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했고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

서는 수시로 현행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운영했던 국민신청실명제를 올해부터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연중 확대 운영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의 경우는 제외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순희 기획예산과장은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국민신청실명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성환 기자

#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9개로 늘어났다

권선 꿈에그린아파트 내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가 9개로 늘어났다. 수원시는 3일 권선구 오목천동 수원권선 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9호점은 지난 4월 29일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8월에 권선구 호매실휴먼시아16단지 내에 1호점을 열었고, 2020년 2-6호점을 개소했다. 올해 7-9호점을 열었다.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안에 12호점을 개소하고, 2022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은 연면적 147㎡ 규모로 프로그램실(2개), 교사실, 조리실 등이 있고, 정

원은 30명이다. 사회적협동조합 더행복나눔이 수탁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저학년 학생·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놀이·학습지도·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학기 중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부부와 같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 서천군, '황금의 도시, 장항! 향미미션여행'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문화부 공모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황금의 도시 장항! 향미미션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황금의 도시, 장항! 향미미션여행'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생활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과거 장항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여행 콘텐츠이다. 여행에 참여하면 장항도시탐험역(옛 장항역), 철길기념목, 전차대 등을 다니며 장항의 상징이었던 장항제련소에서 만들어진 금괴를 찾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장미향 가득한 장항선에 숨겨진 금괴를

찾으면서 풍부한 물자가 오고 갔고, 많은 사람이 살았던 장항의 옛 모습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또한 코스 내 체험프로그램 및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황금 달고나 만들기, 황금 인장 찍기, 황금 맛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장항의 역사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장항은 과거 장항선 철도노선의 종착역으로 인접한 군산과 더불어 과거 산업화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여 여행하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종복 기자